

# 담양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회 개최

### 지역적 특성 등 사업 필요성 여부 다각적 검토·심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도 함께 진행

담양군(공공위원장 최형식, 민간위원장 김형규)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대표협의체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협의체 회의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사업, 읍면협의체의 공동사업과 특화사업 등에 대해 읍면 지역적 특성과 민관협력 추진 가능성, 수혜대상 분포도, 타 사업과 중복 등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심의했다.

특히 올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2026년)을 수립하는 해로 용역 착수보고를 통해 담양군의 복지자원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보다 실천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형식 공공위원장은 "민·관 협력의 구심점인 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천적이고 계획적인 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규 민간위원장은 "실무 협의체와 분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상을 정립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진실과 화해’ 나주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오는 12월 9일까지 방문 우편 접수

나주시는 반민주적·반인권적,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시행(‘20. 12. 10.)에 따라 시행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께 인권유린관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 까지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을 다룬다.

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도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 절차가 진행 중인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 등은 제외된다.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및 나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작성·첨부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며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 신청인 통지 이후 실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조사내용 검토, 심의 의결 후 신청인에게 진실규명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된다.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진실규명 조사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진실규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곡성 갤러리107, 경산 박희석 한국화 개인전 개최

오는 5월 4일까지...대표 수묵담채화 40여점 전시

곡성갤러리 107과 스트리트갤러리에서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박희석 한국화 개인전이 개최된다.

박희석 작가는 곡성 오탁면에 작업실을 두고 지역의 풍광과 전국 곳곳을 사색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박 작가의 대표적인 수묵담채화 40여점을 만나 볼 수 있다.

작가는 “곡성과 전국의 산하를 스케치하며 전통 수묵 기법을 통해 정적인 풍광을 선보이고 싶었다.

이번 전시의 주제가 ‘조금 쉬어가세요’. 작품 속 여백처럼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석 작가는 곡성 출신으로 회재 문장호

선생의 사사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13회의 개인전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전라남도 미술대전과 광주광역시 미술대전의 운영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한국 전업작가회, 수묵회, 남도 수묵협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곡성갤러리 107은 전시가 열리는 동안 휴관 없이 운영하며 10~18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 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 자주식 주차타워 공사 방문 안전관리 실태 및 추진현황 점검

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은 13일 구례읍의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주식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안전관리 실태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군은 병원, 마트 주거단지가 밀집된 구례병원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2층 3단 99면 규모의 자주식 주차타워를 조성 중이며,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해 8월 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광동 군수 권한대행은 합리적인 공사 추진을 통해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광동 군수 권한대행은 “자주식 주차타워 조성을 통해 구례읍의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5월부터 수영 강습 시작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4개 반, 시간대별 20명씩 모집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이하 화순수영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에 발맞춰 5월부터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순군은 화순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수영 강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다. 강습은 기초·초급·중급·상급 4개 반으로 나눠 운영하며, 각 반당 시간대별로 20명씩 모집할 예정이다.

화·목요일은 기초·초급반, 수·금요일은 중급·상급반 강습을 진행하고 토요일은 교정 강습을, 휴일과 공휴일은 자유수영 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로 더 많은 군민이 수영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질정화와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용 군민께서는 샤워실, 라커룸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안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